

서울 대림동의 조선족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형성

서 지 수*

The Making of the Korean Chinese Portal at Daerim-dong, Seoul

Suh, Ji-Su

요약: 서울 내 가장 큰 외국인 밀집 거주지인 대림동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대림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조선족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 대림동은 단기간 내에 형성된 가장 큰 조선족 커뮤니티로, 조선족들에게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장소감이 형성되었다. 연변의 경관을 재현해놓은 대림동 조선족 거리는 조선족이 주류집단일 정도로 조선족의 점유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경관적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문화적응 측면에서 대림동 조선족들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와 한국 문화 수용 의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대림동에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족들에 의해 한국 문화의 역이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또한 대림동은 한국 사회 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수입은 조선족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로의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영등포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이루어내고 있다.

주요어: 조선족, 대림동, 외국인 밀집 거주지, 통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과정 졸업

Abstract : This study chooses Daerim-dong which is the largest multi cultural place in Korea and did an in-depth interview with Korean Chinese who live or work there. Daerim-dong is a large community within a relatively short time, and has developed as a sense of place and a portal between Seoul and Yanbian to Korean Chinese. There is a prominence of Korea Chinese people in The Korean Chinese street which contains as strong landscape that can be recognised. They have a strong will to become assimilated into the Korean society. Korean Chinese have a strong determination to study Korean language and the acceptance of Korean culture. It is also helping the reverse exchange transfer of Korean culture to Yanbian by Korean Chinese who go back to their country. And Daerim-dong became a refuge to the Korean Chinese who were confused about their identity. The community provides a variety of jobs, and thus the stable income helps them to settle in Korean society and wide range of services and programs for foreigners links with local residents is slowly increasing.

Key Words : Korean Chinese, Daerim-dong, Ethnic place, Portal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전보다 모든 분야의 영역 범위가 초국가적으로 넓어지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과 동시에 다른 나라와의 소통과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이동은 경제 활동의 범위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을 이끌어냈다. 과거에는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단순한 전쟁, 정복 혹은 단기간의 여행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보다 장기간의 체류 혹은 이민 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위에서 나타나는 인구 이동은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배경을 가진 집단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가져오게 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형성은 기존에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지역 경관과 지역 주민의 정체성의 변화,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조현미, 2006).

2010년 12월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내 외국인 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10년도에는 918,917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약 67만 명이 증가하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유형은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민, 유학생, 전문 인력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모든 유형의 외국인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박세훈, 2010).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단기간 안에 급증했던 만큼 이전에는 없던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형성 속도 또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미비하였지만, 최근 들어 한국 내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학술연구와 정부정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정책은 민족별, 지역별 다양성을 무시한 채 일관된 정책이 시행되어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외국인 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리학에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현황, 밀집 거주지 형성의 과정 그리고 지역별 분포를 다루고 있는 연구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출신 국가별로 상이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 되었으며, 민족성, 이주민들의 신분 등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색다른 경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지역의 변화, 경관의 창출 등은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선족¹⁾의 밀집 거주지인 서울 대림동을 사례로 하여 대림동이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 자리 잡는 과정 속에 어떠한 장소성이 형성되었으며, 이 장소성의 역할과 그로 인한 지역 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에게 요구되어지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한국인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시각과 기존에 자리잡혀있던 고정관념,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보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서울시가 국제도시로

1) 조선족은 조선족, 재중동포, 귀환동포, 재한 중국 조선족, 중국동포 등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귀환재중동포 혹은 재한 조선족의 의미에 가까우나, 조선족이라는 표현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받아들이기 용이하며 기존 문헌에서도 사용한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조선족이라 표현하기로 한다.

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각과 노력이 무엇인지를 시사해보고자 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대림동은 조선족들이 밀집 거주지를 형성한 곳으로 눈에 띄는 증가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 최대 밀집 거주지인 대림동을 연구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대림 2동이 조선족 상권과 커뮤니티 등이 밀집하여 있기 때문에 주로 대림 2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1월 기준 국내 거주 외국인 비율은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 안산시, 서울시 구로구, 경기 수원시, 경기 화성시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시 영등포구는 약 4만 4,281명으로 지역 내 10.9%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총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두 자릿수라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2010년 영등포구 통계연보의 자료에 나와 있는 대림동의 중국계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도에는 598명에 불과하던 수치가 2002년에 1,167명, 즉 2년 만에 2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외국인 비율 중 조선족의 수는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조선족이 밀집 거주지를 형성한 대림동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조선족은 한국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조선족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 흐름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역사적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 문헌 연구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의 지역별, 국적별 현황 파악과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 인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통계 연보와 관련 기존 연구들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대림동 조선족 밀집 거주지의 역할과 장소성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인터뷰와 대림동 조선족 밀집 거주지의 지역 경관과 조선족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사회의 변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수차례의 현지답사를 진행하였으며, 통로의 역할 중 조선족의 문화 수용의지를 파악하는 것은 Cui, G., Berg, S.V.D. and Jiang, Y.(1998)의 Cross - cultural adaptat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2. 문헌연구

1)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 동향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정착한 이주민과 그들의 공간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어왔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민족성과 거주지 분화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민족성에 대한 연구는 거주지 분화(Clark, 1986; Galster, 1988)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양극화 현상(Brown and Chung, 2008; 정수열, 2008) 등이 있다. 민족 집단의 확산과 격리현상에 대한 연구(White, 1986; Rex & Mason, 1986)가 주를 이루며, 거주지 분화는 격리 현상을 'colony', 'enclave', 'ghetto' 등으로 분류한 연구(Boal, 1978)가 있다.

국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20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하다보니 아직 국내에서의 연구는 특정 지역을 위주로 연구가 되어 오거나, 단순한 현황분석과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로 연구된 지역은 인천 차이나타운(양필승, 2004; 문성준, 서탁, 2008)과 안산시 원곡동(정준호, 2006; 박배균, 정건화, 2004)이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연구 지역이었으며, 전반적인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공간적인 분포는 최재현, 강민조, 2003; 김은미, 김지현, 2008; 박세훈, 정소양, 2010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최재현(2003), 강민조(2003)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분포를 동별, 국적별로 파악하였으며, 박세훈(2010), 정소양(2010)은 국내 수준에서의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유형별 분포를 연구하였으며, 외국인 밀집지역의 유형화를 구분하기도 하였다. 외국인의 유형별 분포는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이처럼 국내 연구는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와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국내 이주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형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상 분석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국적별, 유형별에 따라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통틀어 이해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여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공간을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민족별 접근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 비

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조선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김현선(2010)은 구로구와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조선족들의 높은 정주화 의지를 밝혀냈으며, 가리봉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와(이민주, 2007) 가리봉동의 경관을 재현의 공간과 문화의 혼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연구(정문수, 2008) 등이 진행되어왔다.

2)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

문화적응이란 단어는 cultural adaptation, cross-cultural adaptation, cross-cultural adjustment, acculturation 등 다양하게 표현되며(김동환, 2007),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문화적 근원이 다른 사람들 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의 결과로 일어나는 변화’라 정의된다(Redfield, Linton and Herskovits, 1936). 최근의 문화적응(cross-cultural adaptation)은 ‘익숙해진 자신의 본래 문화와는 다른 문화권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복잡한 과정’이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다(Halsberger, 2005). 문화적응에 대한 틀을 제시한 Berry(1980)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모국 문화정체성의 유지 여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등 4가지 형태로 나누어 막연하게 이루어지던 문화적응 연구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Berry의 문화적응 모델은 문화적응의 유형을 구분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는 장점을 통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문화적응이라는 것은 4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

라 두 형태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에 놓여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Berry는 주류사회와의 관계 유지 여부와 모국 문화정체성의 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Berry는 문화적응 과정을 접촉, 갈등, 적응의 3 단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문화적응은 상이한 문화접촉 상황에서의 적응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으며, 인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집단수준의 변화를 가리킬 때 사용하였으나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집단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수준의 변화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정진경, 양계민, 2004). 이주민들의 경우, 자신들의 모국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채, 주류사회의 문화에도 적응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며, 문화적응과정 속에서 정체성은 변화하기도 유지되기도 한다.

지리학 내에서는 문화적응을 다루는 연구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서도 둘 이상의 다른 지역의 문화가 한 공간에서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문화의 변화와 수용의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적응과정과 더불어 이것이 공간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주민의 문화적응은 문화와 공간을 다루는 연구라는 점에서 문화지리학 분야에서 다룰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다.

3. 대림동 조선족 밀집 거주지의 형성 과정

1) 서울 대림동 거주 외국인의 역사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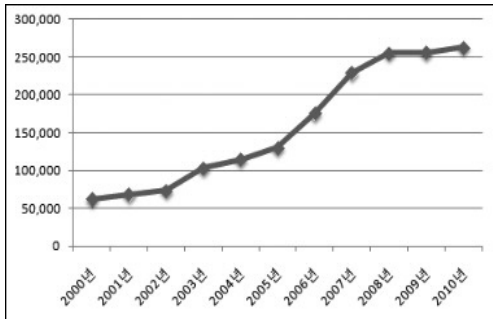
(1)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역사와 현황

국내 등록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것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0년대부터 비교적 뚜렷한 증가가 보이기 시작한다. 1992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한중수교가 이루어진지 15년 만인 2007년도에 국내체류외국인의 수가 약 2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 해인 1993년에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실시되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였고 이때부터 외국인 유형은 점차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전문인력 등이 그들이며(박세훈, 2009), 이후 2000년도에 들어서 연수취업제도(2000), 고용허가제(2004), 방문취업제도(2007)가 실시되면서 외국인 등록자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는 전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밀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까지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장 많았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도심주변부인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10년 기준으로 262,902명으로 2000년도와 비교하여 약 20만 명이 증가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총 260,019명 중에 영등포구가 39,793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이며, 그 뒤로 구로구와 금천구가 뒤따르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치는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는데, 2위에 해당하는 구로구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약 1만 명이상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조선족의 비율이 51.94%로 절반을 넘는 수가 조선족임을 알

수 있다. 전국의 수준에서 보게 된다면 조선족의 수치는 배로 증가하며,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로 이주하여 자리를 잡은 조선족의 수가 눈에 띄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형성된 조선족 밀집 거주지의 연구가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서울시 거주 외국인의 수
자료: 통계청(2010)을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표 1〉 서울시 거주 외국인 지자체별 현황

지역 구	외국인 수	지역 구	외국인 수
종로구	9,337	마포구	3,960
중구	6,424	양천구	6,475
용산구	12,586	강서구	8,379
성동구	10,255	구로구	28,818
광진구	12,555	금천구	19,342
동대문구	4,666	영등포구	39,793
중랑구	6,048	동작구	11,517
성북구	7,051	관악구	14,461
강북구	4,259	서초구	6,691
도봉구	3,206	강남구	8,636
노원구	5,446	송파구	8,673
은평구	5,610	강동구	5,716
서대문구	10,115	서울시 합계	260,019

자료: 통계청(2008)을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단위: 명

(2) 대림동 거주 외국인의 역사와 현황

대림동이 속해있는 영등포구는 현재 서울시 내

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며, 영등포구와 구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대부분이 조선족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등포구는 현재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그 증가의 폭이 매우 크고 단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도에 1만 여명을 넘어서기 시작하여 2년 동안 한 해에 약

〈표 2〉 영등포구-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현황

국 적		외국인 수
동북아시아	중국	1,006
	중국(조선족)	31,249
	대만	458
	일본	149
	몽골	69
동남아시아	베트남	250
	필리핀	109
	태국	89
	인도네시아	62
	기타	43
남부아시아	네팔 등	228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43
미국	미국	403
러시아	러시아	24
기타	기타	284
합계		34,466

자료: 통계청(2008)을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단위: 명

1만여 명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한 해에 2배에 달하는 인구로 증가한 것인데, 이러한 배경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선족의 상황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영등포구 내에서도 대림동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약 3만여 명의 외국인 중 2만여 명이 넘는 수치를 조선

족이 차지하고 있다. 즉, 영등포구의 높은 외국인 비율은 조선족의 유입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의 조선족 밀집 거주지였던 가리봉동의 재개발 산업과 동시에 영등포구의 외국인 증가가 나타난다. 2004년을 기점으로 영등포구로 유입되어 들어온 외국인의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은 같은 해에 시작된 가리봉동의 재개발 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의 영향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직장과 거주지를 잃은 조선족들은 가리봉동 부근에 위치한 여러 지역들 중 이미 작은 조선족의 밀집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지가가 저렴하고, 일터와 가깝고, 무엇보다 지하철 노선 두 개가 환승되는 대림역을 배경으로 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한 대림동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약 3년여 동안에 2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후 영등포구는 많은 조선족의 유입으로 서울시 내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되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조선족의 비율은 약 90%에 해당된다. 나머지 10%는 조선족을 제외한 중국인, 대만,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2) 대림동 조선족 밀집 거주지 형성과 현황

(1) 대림동 조선족의 밀집 거주지 형성

중국 조선족은 중국의 한 민족으로 중국의 소수 민족들이 대부분 중국내 정착민이었던 데 반해 조선족은 이주를 통해 형성된 민족이다. 초기 이주민들은 19세기 후반 극심한 흉년을 피해 만주로 이동한 함경도 주민들이다. 1992년 한중수교와 1993년

에 실시된 산업연수생제도 이후 조선족 이주의 수는 각 해마다 약 2-3천 명씩 꾸준하게 증가하여 1997년에 등록된 조선족의 수가 1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이후 2003년부터 급격한 증가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2003년에 등록된 조선족의 수는 2002년 48,293명에 비해 약 6만여 명이 증가한 108,283명을 기록한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국내 거주 조선족의 수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하여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전에는 약 2-3천 명씩 증가하던 수치가 2003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부터는 약 2만여 명 이상씩,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5만여 명이 넘는 증가를 보인다. 이후 2004년에 실시된 고용허가제와 2007년에 실시된 방문취업제도는 조선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의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조선족의 유입이 물밀듯이 밀려들어 오게 된다. 즉, 조선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의 배경은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가 점차 줄어들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 3D 업종의 기피현상, 중국의 경제 난민의 증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노동자의 유형이며, 위장 결혼을 통해 온다거나 불법체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가장 큰 조선족 밀집 거주지는 영등포구 대림2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다.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선족 밀집 거주지는 대림동보다 구로디지털단지역을 중심으로 한 가리봉동에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가리봉동에 조선족들이 자리 잡기 시작한 정확한 시기는 추정하기 어려우나 1990년대 중·후반 무렵부터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²⁾. 조선족들이 '쪽방'이라 불리는 단기 임대 주택가를 찾게 된 것은 가리봉동의 지역적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구로구 가리봉동은 1960-1970년대부터 시작하여 공단 노동자들의 주거지

〈표 3〉 국내 조선족 등록 외국인 수치 변화

국내 조선족 등록 외국인 수치					
년도	총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년도	총 등록외국인	불법체류
1993	2,143	21,387	2002	48,293	21,032
1994	4,667	17,093	2003	108,283	17,201
1995	7,367	22,696	2004	128,287	25,223
1996	9,345	27,215	2005	146,338	22,513
1997	11,800	24,106	2006	221,625	19,904
1998	11,769	20,576	2007	310,485	21,599
1999	20,353	14,730	2008	362,920	18,037
2000	32,443	11,887	2009	363,087	16,876
2001	42,827	17,139	2010	366,087	15,970
			2011.2	370,749	15,489

자료: 법무부(2011), 출입국관리국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2011년의 수치는 출입국관리국 통계월보 2월호 근거

단위: 명

역할을 해오다가 1980년대 이후 공단의 지방 이전으로 인해 지역이 침체화되고 버려지기 시작하였다. 이 빈 공간에 1990년대 이후 들어선 이들이 조선족들이다. 교통의 편리함과 저렴한 집값은 조선족들의 생활 여건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던 것이다(이민주, 2007).

가리봉동의 엔벨로피는 구로 디지털단지 내 일자리가 많음과 동시에 저렴한 집 값, 일터와의 가까움 등을 배경으로 하여 조선족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1998년 이후부터 조선족의 밀집 거주지 역할을 하였던 가리봉동은 조선족 폭력조직 간의 구역 다툼이 몇 년 동안 진행됐을 정도였다. 하지만 가리봉동은 2004년부터 추진된 '가리봉동 재정비촉

진지구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인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재개발로 인해 일자리와 집을 잃은 조선족들은 가리봉동 인근에 위치한 대림동으로 이주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가리봉동 옆에 조선족 마을을 형성하고 있던 대림동은 가리봉동 이후의 가장 큰 조선족 밀집 거주지로서 거듭나기 시작한다. 가리봉동 이후 대림동이 조선족 밀집 거주지가 된 배경은 기존에 가리봉동과 함께 대림동도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서울 시내 순환선인 2호선과 7호선이 맞물려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였다. 조선족은 가리봉동과 대림동을 넘어서 점차 넓은 지역으로 밀집 거주지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그들의 경제적인 배경으로 인해 지하철역과 가

2) 이민주(2007)에 따르면, 구청에서 제공되는 통계는 미등록 노동자의 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시기별 변화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가리봉동의 조선족 거주 규모 혹은 정확한 시기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제공 되어진 통계 자료와 조선족들과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가리봉동에 조선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까운 미개발 지역으로 몰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의 밀집 거주지는 현재 신림역, 봉천역, 건대입구 역등 2호선 주변으로 형성되어지고 있다.

(2) 대림동 조선족의 현황

조선족들은 대림 1, 2, 3동에 퍼져 있지만 대림 2동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조선족 밀집 거주지는 가리봉동 재개발이 시작된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급격하게 조선족의 수가 증가하였다. 대림동에서도 대림역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대림2동의 조선족 밀집도가 특히 높게 나타난다. 2003년까지만 해도 169명에 불과하던 조선족의 수는 1년 사이에 1,316명, 다시 말해 약 9배에 달하는 증가 추이를 기록한다.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2006년에 들어서는 5천 명을 넘어서게 되고, 2009년 대림 2동의 조선족 비율은 약 27.9%를 차지한다. 조선족의 인구 변화경향에서 주목되는 것은, 국내 외국인 비율에서만이 아니라 대림동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비교해 볼 때에도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년 당시 영등포구에 사는 조선족들의 비중은 0%대 수준이었으나, 2007년에 들어 6% 이상이 되었다. 이것은 불과 5, 6년 만에 증대한 수치라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매우 유의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김현선, 2010). 그뿐 아니라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인데 이에 대해 영등포구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할 경우 영등포구 내 거주 외국인이 5만-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족이고 대림 2동에 모여 산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대림 2동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수치는 약 2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

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통계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 예상이 옳다는 전제하에 대림 2동은 실제 거주하는 조선족의 인구가 이미 지역 주민의 인구를 넘어설 수도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대림지구대에서는 대림동에만 약 4만 명이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한다³⁾.

또한 조선족 밀집 거주지의 현황은 다른 외국인의 공간 분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유의미한 지역이다. 조선족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서울시 외곽에 위치한 산업단지 주변에 밀집 거주지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조선족의 경우는 더 많은 수가 서울시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배경은 조선족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 능력과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때문에 다른 외국인들과 차별적인 공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직업도 건설업, 요식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박

〈표 4〉 2000-2009년 대림 2동 조선족 인구 현황

대림2동 내 조선족 인구 현황			
년도	조선족 인구 수	대림2동 총 인구 수	비율
2000년	24	24,660	0.09
2001년	18	24,343	0.07
2002년	60	23,805	0.25
2003년	169	22,580	0.74
2004년	1,316	22,505	5.84
2005년	1,753	22,070	7.94
2006년	5,032	24,335	20.67
2007년	6,377	25,802	24.71
2008년	8,101	27,705	29.24
2009년	7,572	27,157	27.88

자료: 영등포구 영등포통계연보(2010)를 이용하여 연구자 작성
조선족 수치는 중국국적 수. 비율은 필자 구성

단위: 인구 수(명), 비율(%)

3) 국민일보, 2009년 11월 26일자 [“2호선 대림역 8번출구, 중국서도 다 알아”... ‘조선족 특구’ 서울 대림2동 이야기]

세훈 외, 2010).

4. 대림동의 통로(portal)로서 장소성

통로(通路)란, 두 개 이상의 매개체를 이어줌으로써 다른 공간으로 연결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위치나 이용 형태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로의 의미는 통행 공간으로서의 통로의 의미에 가장 가깝다. 또한 본 연구에서 쓰이는 통로의 의미를 가장 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로를 ‘portal’로 해석하고 있다. 포털(portal)이란, 현관,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한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하기 위한 관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통로의 개념을 이용하여 서울 대림동의 역할과 의미를 해석해보도록 한다.

1)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의 대림동

(1)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를 통해 펼쳐지는 서울 안의 연변

조선족들에게 한국은 타국이 아닌 그들의 고향으로서 인식되어진다. 자신들의 본고지는 한국이지만 잠시 떠났던 것이며,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곳, 내면 속의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출발지로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선족들에게 대림동의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는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인 동시에 고향으로 가는 노드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2호선 대림역에 내려 8번 출구로 나가는 계단을 내려가면 마치 중국 연변의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면서 계단을 내려오

자마자 들리는 것은 삼삼오오 모여 있는 조선족들의 연변사투리 혹은 중국어이고,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중국어로 된 간판과 8번 출구 바로 앞에서부터 서 있는 조선족들이 나누어주는 중국어로 된 지하철 노선도, 각종 직업소개소의 전단지 등이다. 서울 시내 한복판이지만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를 나서는 순간 한국인보다 조선족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고,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모습이 펼쳐진다. 즉,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가 마치 서울에서 한순간에 연변으로 온 듯한 느낌을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대림역 8번 출구 앞의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는 모습을 항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상가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길거리에서 있는 채로 모임을 갖고 있다. 조선족들에게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는 단순히 지하철역 입구를 넘어선 의미가 형성되어 있는데,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라고 하면 중국 현지에서도 다 안다고 할 만큼 이미 조선족들에게는 유명한 곳이다. 한국에 온 조선족이라면 대부분 대림역부터 찾아오고, 여기서 일자리를 얻어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⁴⁾.

“... 중국 연변에서는 서울은 몰라도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는 다 알아요. 그만큼 조선족들한테 있어서 대림동의 의미는 굉장한거죠. 나중에 일은 다른 지역에서 하더라도 우선은 대림동으로 들어와서 일을 구한 후에 옮겨 나가는 식이에요. ...”

- 이OO, 남, 다문화 빌리지 센터 교육담당

“... 누구랑 어디서 만나자 그런 말 안 해도 거기

4) 국민일보, 2009년 11월 26일자 [“2호선 대림역 8번출구, 중국서도 다 알아”... ‘조선족 특구’ 서울 대림2동 이야기]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에 가면 다들 그냥 서 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 모여서 떠들고 있으면 다 조선족이야. 조선족들이 워낙 길가에 그냥 서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 원래 내 고향은 가평인데, 여기도 내 고향 같은 느낌이 들지...”

- 정OO, 남, 62세, 슈퍼 주인 (전 중국동포타운 신문 회장)

조선족의 생활공간인 대림동 중앙시장과 가장 가까운 지하철 출구는 2호선 8번 출구가 아닌 7호선 12번 출구이다. 하지만 조선족들에게 2호선 8번 출구가 더 많은 의미가 형성된 것은 이들의 경제적 상황을 담고 있는 일상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한국에 들어온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계들은 대부분이 돈을 벌 목적으로 들어온 경우이며, 그러하다보니 여유 있는 생활이 어려워 서울 시내에서 집값이 저렴한 동네에 자리를 잡게 된다. 가장 큰 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대림동과 더불어 앞선 3장에서 살펴본 중국계 밀집 거주지를 살펴보면 모두 집값이 저렴한 지역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직업적인 특성 상 2호선과 가까운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⁵⁾. 그러하다보니 조선족끼리의 모임을 가지게 될 때에도 2호선을 이용하여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소에 근무할 때에도 2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조선족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운 7호선 12번 출구보다 2호선 8번 출구에 통로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2호선 8번 출구에서 내려와 7호선 12번 출구가 있는 골목으로 들어서면서 펼쳐지는 경관은 흡사

연변에 와있는 느낌을 준다. 골목을 들어서서 순간 시각, 청각, 후각적으로 낯선 세계가 느껴지는데, 눈에 들어오는 간판은 중국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90%는 조선족이다. 들리는 언어는 중국어와 연변 사투리가 묻어나는 한국어가 들려오고, 중국 특유의 향신료 냄새가 느껴진다. 이곳에서 만나는 조선족들이 주류집단이며, 음식점들의 고객, 주택의 입주자 등 모두가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조선족들에게 공간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림동에서 이루어지는 조선족 모임을 통해서도 확인되어 지는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지하철을 타고 대림 2동으로 모여 만남을 갖는다. 즉, 영등포구 내에서도 대림2동은 조선족 거주지일 뿐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과의 집결지이기도하며, 범위가 점차 확장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조선족 거리의 경관

2호선 대림역 8번 출구를 시작으로 대림동 중앙시장 골목을 들어서면 서울 안의 연변의 모습이 드러난다. 조선족 식료품과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 거리와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 공간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족에 의해 점유되어 있다. 조선족 거리의 경관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조선족 식료품점, 음식점 등과 같은 음식 상권이다. 조선족 거리에 자리 잡은 상점의 절반 이상이 음식 상권일 정도로 많은 비중을

5) 서울 시내 순환선인 2호선이 가깝고 집값이 싼 구로디지털단지, 신림역, 건대입구역 등 2호선 주변으로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으며, “중국 동포들은 지하철과 가까운 미개발 지역으로 몰린다”고 구자철 동장이 분석하였다. (국민일보, 2009년 11월 26일자, [“2호선 대림역 8번출구, 중국서도 다 알아”]... ‘조선족 특구’ 서울 대림2동 이야기)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는 직업소개소, 핸드폰 대리점, 여행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모든 상권들은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혹은 함께 거주하는 한국인은 주요 대상이 아니며, 조선족을 위해 이루어져 있다.

음식 상권을 먼저 살펴보면, 수많은 조선족 음식점들은 손님 대부분이 조선족 사람들일 정도로 조선족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한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이나 프랑스 서래마을 등과 같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한국인들의 발길이 매우 뜸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조선족 음식점에서는 한국어로 만들어진 메뉴판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안 와요. 여기 거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조선족이 더 많아요. 한국인들이 오더라도 음식점까지 와서 먹고 가거나 그런 일은 많지는 않죠. 예전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늘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매상의 90%가 조선족들이예요...”

- 박OO, 남, 40세, 조선족 음식점 주인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조선족 거리는 비위생

적이고 시끄러운 공간으로 자리 잡혀 있었고, ‘가고 싶지 않은 곳’,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조선족 거리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매우 적고, 조선족들만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하다보니 조선족거리의 음식 상권은 철저히 한국적인 요소와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족거리에서 떨어진 지역에 자리 잡은 조선족 음식점은 한국인을 위한 한글 메뉴판이 준비되어 있고, 음식도 한국인의 입맛에 많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에 조선족거리의 음식점들은 연변의 음식 문화가 조선족의 입맛에 맞게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상 시설물 중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방문하였을 때, 이 지역이 어느 나라의 밀집 거주지인지 알게 해주는 첫 번째 지표인 간판을 살펴보면, 대림동은 영등포구청 측에서 공식적인 경고문도 중국어로 된 경고문을 제공하고 있다. 구청에서 제공되는 경고문이 중국어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대림동 내에서는 중국어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중국계 이주민들의 중국을 상징하는 붉은 색을 간판 혹은 건물에 드러내고자 하는 특징이 조선족 거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된다. 대림2동 중앙시장 부근 조선족 밀집 거주지 내의 약 200m에 달하는 조선족 거리의 간판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약 40%에 가까운 비율이 중국어 혹은 간자체로 이루어져



〈그림 2〉 붉은 색 배경의 중국어 간판이 주를 이루는 조선족거리

있다. 서울 시내의 간판이 시간이 흐를수록 외래어로 이루어진 간판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대림동의 조선족 거리는 외래어의 비율이 현저히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간판은 조선족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경관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나, 음식점 외에 핸드폰 대리점, 여행사와 같은 상점조차 중국어 간판어로 되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되어진다.

2) 서울에서 연변으로의 문화이동

지금까지 연변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반대로 서울에서 다시 연변으로 전해지는 문화 요소를 살펴본다. 대림동은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연변의 문화를 서울에 재현해 놓은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반대로 서울의 문화가 연변으로 전해주는 역할 또한 해내고 있다. 즉, 한 방향으로는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오고가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변에서 서울로 통로의 역할보다는 비교적 비중이 적으나 이동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1) 조선족의 한국 문화 수용 의지

서울에서 연변으로 문화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기에 앞서 조선족의 한국 문화 수용 의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족은 특수한 배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 문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① 언어 능력

조선족들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로 이주 이전부터 한국어를 접한 경험이 많아 거부감이 덜 하고 구사 능력을 갖춘 비율이 높은 집단이다. 조선족의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학습 의지를 알아보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본 결과, 조선족거리에서 상점을 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들과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편에 속한다. 글을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조선족의 경우도 일상 대화는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길지 않아 한국어가 서툰 조선족들이나 뚜렷한 직업이 없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한국어 공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무료로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센터를 이용하며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공부를 하는 등 의지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몸소 체험하며 느끼고 있는 이들은 조선족이라는 신분을 최대한으로 가리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 한국인과 동화되려는 의지에서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선족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의지는 자녀들의 언어 학습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자녀가 있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절반이 넘는 조선족들이 자녀들이 중국어보다 한국어를 더 능숙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자신들이 겪었던 한국사회에서의 차별이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족을 좀 싫어하는거 같아

요. 조선족들은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거 같더라구요. 우리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해줘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말하려면 한국말 잘해야죠. 한국말 못하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요. …(생략)… 내 아이는 중국어보다 한국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인처럼 되죠.…”

- 김OO, 여, 32세, 다문화 빌리지 센터 이용객

“…난 내가 조선족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래도 서울 말씨는 아니다보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조선족이라고 하면 다들 놀래기도 하고 그러지. 난 중국에 있을 때도 내가 한국인이라 생각하고 한국말을 많이 쓰고 그랬었어. 지금 서울에서 지내면서도 한국어 때문에 고생하는건 전혀 없는 편이지. 조선족들은 한국말 잘해요.…”

- 정OO, 남, 62세, 슈퍼 주인 (전 중국동포타운 신문 회장)

이처럼 조선족들은 이주 이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익혀왔던 경험을 배경으로 하여 비교적 한국어 능력이 높은 편에 속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기존에 갖추고 있던 실력보다 조선족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이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조선족의 경우,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자녀들의 제 1 언어가 한국어가 되기를 바라는 조선족들도 많았으며,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는 실력에도 한국인이 말하는 한국어와 비슷하게 구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높은

의지와 이러한 의지를 가지게 된 배경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② 문화 수용 의지

문화 수용 의지는 이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고려하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타인은 주류사회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타인, 즉 모국인 친구들도 포함된다. ‘문화’라는 것의 범위는 포괄적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받아들이는 정도를 일상문화와 음식문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조선족들의 일상생활 속에 묻어나는 한국 문화 수용과 그에 대한 의지는 TV, 라디오 등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확인되어진다. 이들은 TV 속 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부터 이어져오고 있었다.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조선족들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모습과 일상, 문화 등을 접하였고 이것은 한국으로 이주해온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조선족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한국문화체험에도 참여하는 등의 문화 수용 의지가 높게 나타난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혹은 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기회를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한국문화와 조선족 문화는)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거 같아요. 근데 내가 한국으로 온거니까 내가 한국 문화 배우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야죠.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조선족

친구들이랑 외국인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하는 그런거 해요. 대개 재밌어요...”

-이OO, 여, 40세, 음식점 종업원

이처럼 조선족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와 이해하려는 노력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주류사회로의 편입을 시도하는 과정으로서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질적으로 한국 문화와 조선족의 문화가 다른 것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의미보다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 간의 저울에서 한국 문화를 향해 보다 기울어져 있는 것이라 여기며, 이러한 것들이 이주민으로서 문화적응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억지로 행해지는 행위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호의적인 태도로 문화를 수용하려는 입장을 보인다.

다음으로 음식문화⁶⁾를 살펴보면, 조선족들은 한국으로 이주해오기 이전 중국에서부터 한국 음식을 종종 접하곤 한다. 중국 내 조선족들의 자치구인 연변은 이미 한국 문화가 상당수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 음식을 접한 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조선족의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수용은 이주와 동시에 용이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 연변에 있을 때부터 한국 음식 많이 먹었어요. 남편이랑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은 한국인) 더 자주 먹어요. 다르긴 한데 맛있고 남편이 한국 인이니까. 연변에서 먹던 음식들도 먹고 싶을 때 있는데, 많이 적용됐어요. 가끔 식당가서 사먹어요...”

- 김OO씨, 여, 32세, 다문화 빌리지 센터 이용객

대림동 중앙시장 조선족 골목을 중심으로 형성된 조선족 음식 상권의 존재와 확장은 주류사회의 문화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모국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측면보다는 조선족의 지역임을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 밀집 거주지로서 모국의 식료품을 구하고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들의 영역임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인 동시에 모국의 그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재현의 공간’⁷⁾으로서의 경관인 것이다. 조선족의 음식 상권이 한국 음식 문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경관과는 다르게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대림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조선족들도 종종 한국 음식을 먹고,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조선족의 경우 한국 음식을 먹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음식 문화의 수용 정도는 앞선 일상 문화와 언어의 측면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6) 음식은 다양한 문화 요소 중 하나로,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인 동시에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 계층, 역사적 요소와도 관련이 있다(Goody, 1982; 김효진, 2010). 즉, 문화 요소로서 단순히 ‘먹는’ 행위를 넘어서 한 사회의 세계관과 상징체계를 보여주고 그 사회의 암묵적인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식을 공유하고 교환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을 의미한다(김광역, 1994).

7) 이주민들은 고향에 대한 경험과 문화를 보존한 채 이주하게 되며 이것은 주거·음식·여가·직업 등 다양한 생활양식에 대한 기억이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와 결합되어 장소감을 형성하게 된다(정문수, 2008).

수용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 조선족은 한국 음식 문화를 배우고 받아들이려는 동시에 자신들의 모국 음식의 정체성 역시 유지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것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 동화된 문화의 역이동

대림동의 통로로서 역할은 연변에서 서울로의 일방적인 통로가 아닌 양방향의 이동으로 이어진다. 대림동이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초반에는 연변에서 서울로의 사람과 문화적인 요소들의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는 한국 문화를 경험한 조선족들이 다시 연변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역방향으로의 통로 역할도 동시에 담당하게 된다.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 문화 수용의 정도가 높은 조선족들은 그만큼 본국으로의 한국 문화 이동도 이끌어내게 된다.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은 한국 음식을 자주 접하고, 한국 TV 방송을 시청하며, 한국인을 통해 들어오게 된 교회를 다니는 이도 많다. 대림동이 통로의 역할을 하기 이전, 조선족들이 연변으로 이동한 시점부터 기존의 한국 문화가 함께 이동하여 연변에 한국 문화가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위한 다양한 비자제도를 통한 보다 쉬워진 한국으로의 이주와 조선족들을 받아준 대림동의 역할은 한국 문화의 유입을 더욱 촉진시켰다. 한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있는 조선족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연변의 조선족들은 한국의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되었다.

“...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중) 성인 10명 중에 5

명은 한국에 갔다 온 경험이 있는 정도예요. 몇 년 전부터는 한국에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더 많아졌고, 한국 문화도 많이 들어왔어요. 정확히 몇 년도 인지는 생각 안 나는데 몇 년 전부터 한국 TV도 방영되고, 옷도 한국에서 많이 사오고, 한류 때문에 한국 음악도 많이 듣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한족들이 조선족을 부러워하고 그래요. 한국어랑 중국어 둘 다 할 줄 알고, 한국 스타일 옷 입고 그러다면서...”

- 김OO, 남, 27세, 학생

“... (한국에 오는 조선족들이 많아지면서 연변으로도 한국 문화가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런거 같아요. 원래도 한국적인게 많았는데, 한국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사람들끼리 한국에 뭐 있다 한국이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연변으로 갔다가 또 나오기도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한국 정보를 많이 줘요...”

- 이OO, 여, 35세, 글로벌 빌리지 센터 이용객

대림동이라는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를 통해 한국의 문화가 연변으로 전파된다는 점은 비단 대림동이라는 공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선족들은 대림동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 그리고 전국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대림동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전해진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대림동이 수용하고 있는 조선족의 비중을 보았을 때, 대림동을 통해 연변으로 전해지는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존에 대림동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던 조선족을 통해 대림동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최근 들어 조

선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연변으로 들어오는 한국적인 요소들도 보다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문화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연변에서 한국으로의 통로는 대림동을 기점으로 하여 넓게 확대되어 퍼져나가는 양상을 띠는 반면, 한국에서 연변으로의 통로는 대림동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모여서 연변으로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림동이라는 통로는 서울 안의 연변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연변 안의 한국 요소를 유입하는 여러 통로 중 하나의 기능, 역방향으로의 통로로서도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5. 조선족 커뮤니티로서 대림동

1) 제2의 고향인 안식처

조선족은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민족이다.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제 2의 고향이라 생각하고 이주해 온 한국 사회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어야 했던 조선족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 같은 상황 내에서 대림동이라는 공간이 조선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1) 제3의 정체성으로서의 조선족

민족 정체성은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며 이것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이동하기도 한다⁸⁾. 조선족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소수 민족이다. 특히나 한국인들의 조선족에 대한 시선과 차별로 인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체성의 혼란은 세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 거주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 이주 1세대의 경우, 한국은 자신들의 고향이자 모국이며, 자신들은 한국인이라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20-30대에 해당하는 이주 2세대들은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였을 때, 자신이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더욱 심하게 겪고 있으며, 한국인들의 차별과 배제 속에서 자신들이 진정한 것으로 소속된 민족은 어디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한국은 내 나라인데 당연히 좋지요. 우리 나 이 때까지는 당연히 한국을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자식세대들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한국인들은 우리를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 거의 다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한국인들은 우리 역사를 잘 몰라...”

- 최OO씨, 남, 56세, 음식점 주인

조선족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은 한국인들의 '제 3자'로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 속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56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은 소수민족에 대한 제도와 인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혀 있어 조선족들은 중국에서 평등한 위치에서 생활하게 되고 오히려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8) Tim Edensor, 2002,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박성일 옮김, 2008, 이후

를 능통하게 하는 점과 한류의 영향으로 한족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다. 중국에서는 동등한 소수 민족 중 하나의 민족으로서 살아오던 이들이 또 하나의 고향이라 여기고 이주해 온 한국에서는 '제3의 정체성'으로 분리되어지고, '조선족'이라는 표현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해져 차별받는 민족으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 사람들은 왜 '조선족'이라고 표현해요? 미국에 있는 동포나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재미동포, 재일동포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조선족이예요? '재중동포'가 있잖아요. 이렇게 부르지는 것부터가 우리를 차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다는 모르지만 우리한테만 조선족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인거잖아요. 솔직히 기분 많이 나빠요. 버려진 아이 같아요...”

- 박OO, 남, 25세, 학생

정체성 혼란은 이주 1세대에 비하여 이주 2세대들이 더욱 심하게 겪고 있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의 배제이다. 한국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이주 1세대의 경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한국인들로부터 배제를 당하게 되면서 한국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이주 2세대들은 배제와 무관심 속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 사회로부터의 배제는 대립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과 주민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조선족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수용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사회관계 측면은 반대되는 결과를 보인다. 이루어지지 않는 소통과 배제는 조선족들로 하여금 스스로 혹은 일방적으로 한

국사회로부터 소외되게 하고 있다. 조선족들과의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한국인의 수가 거의 없거나 조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한국인들이 참여하는 곳에 참여하는 경우는 인터뷰를 했던 거의 모든 조선족들이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에 대한 편견은 조선족들에 대한 무시와 배제 행위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인과 조선족 간의 충돌과 범죄 사례 등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차별은 상당수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조선족을 향한 인식이 바뀐 것도 아닌 상황이다. 다시 말해, 조선족들의 한국사회로의 동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인 한국인들은 조선족을 '그들'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일정한 경계선을 긋고 있어서 자신들의 의지와 한국인의 인식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고, 조선족들은 주류사회와의 관계 측면에서 일정한 경계(boundary) 바깥에 머물고 있다.

(2) 안식처로서의 장소

이주민들에게 밀집 거주지는 단순한 '거주지'로서의 의미를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들에겐 해당 지역이 거주지인 동시에 일터이며, 생활공간이고, 안식처이다. 앞서 살펴본 문화적응과 정을 거치면서 조선족에게 대립동이라는 공간은 그들의 문화가 이식되어오고 사회와 소통하면서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의미가 형성되었다. 제3의 정체성으로 나아가고 한국인들과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정한 경계 바깥에 머물고 있으나 자신들이 주류집단이 되고 있는 대립동이라는 지역 안에서 조선족들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민족문화를 표출하며 소통을 하게 되고 삶의 터전 속에서 일자리를 얻음으로써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가 획득되어지고, 조선족의 새로운 정체성이 한민족이라는 같은 뿌리를 둔 사회에 정착하게 된다.

한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은 한국 사회 내에서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지는 않다.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공장 근무, 음식점 종업원, 식료품 가게, 미용실 등 중산층 계층의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중국에 있을 때와는 달리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로부터 경제적 지위를 얻게 됨은 중국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 한국으로 이주해 온 경우, 고된 직업 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저렴한 집 값,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 속 고향'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만족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이) 전 대개 만족스러워요. 내가 살고 싶은 한국에 왔고, 여기서 일도 하고 있고, 먹고 사는 데 불편함 없이 지내는데 불만을 건 별로 없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거기 간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돌아갈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어요. 중국은 빈부격차도 심하고 환경이 너무 안 좋거든요. 여기서 훨씬 편해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보는데, 그런건 몰라도 사람 살기엔 너무 힘들어요. 중국에 있을 땐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구해도 또 금방 못 다니게 되고. 여기서는 대림동 안에서 이렇게 음식점 하면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좋죠...”

- 이OO, 남, 41세, 대림동 내 중국음식점 주인

이와 같은 경제적 지위는 조선족의 음식 상권 경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족 거리는

음식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 거리의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는 대부분 조선족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업원 역시 모두 조선족이다. 음식 종업원을 구한다는 전단지 를 쉽게 볼 수 있을 만큼 일자리 창출이 높고, 조선족과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 업무환경도 좋은 편이다. 대림동 중앙시장 옆에 위치한 조선족 밀집 거주지로 들어서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중국 식료품점과 전통 음식점들이다. 약 250m 가량 이어지는 조선족 거리 양 쪽에 자리 잡은 상가들 중 두 세 집을 건너면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이 나올 만큼 음식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족거리 도입부에 자리 잡은 몇 개의 화장품 매장과 할인마트를 제외하고는 조선족 상점으로 이루어져있다.

대림동 조선족 거리는 불과 5년여 만에 100여개의 조선족 상가가 생겨났는데, 2005년 당시 조선족 가게는 물론 거리가 전체적으로 쇠퇴되어 있었던 데 반해 2011년 현재는 100여개의 조선족 상가들이 자리를 잡았다(김현선, 2010). 한국 사람이 가게를 정리하면 중국인이 바로 들어와 점유를 할 정도이며, 경제가 불황인 때에도 이 지역의 음식점들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비며 이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하다 보니 이 지역 내 자리 잡았던 한국 음식점들은 점차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며, 조선족 음식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⁹⁾. 또한 대림동에는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소가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영등포구 전체적으로는 조선족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약 235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림동 일대에는 60여 곳이 넘게 등록되어 있다¹⁰⁾.

“...아무래도 조선족들이 여기 많이 사니까 장사는 항상 잘 돼요.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보다도 더 많이 생겼고, 아무리 한국이 좋지만 중국에서 먹던 음식들 생각도 나고 아무래도 입맛에 잘 맞으니까 당연한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잘 안 와요. 손님들의 거의 80-90%가 조선족 사람들이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 좋아하던데 여긴 잘 몰라서 그런가 많이 안 오더라구요...”

- 김OO, 여, 44세, 대림동 내 중국음식점 주인

조선족의 음식 상권은 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언제나 장사가 꾸준히 잘 되는데, 조선족의 비율이 높은 만큼 확보된 고객이 오히려 넘치는 정도의 수준에 달한다. 빈자리가 없어 다른 음식점으로 발길을 돌려야 할 만큼 조선족 거리의 음식 상권은 경제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수입을 통해 조선족들은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수입은 이들의 거주지에 대한 안정감으로 이어지게 된다. 조선족들의 경우, 자가주택이 약 10%, 전세가 30-40%, 월세가 50% 정도이다. 대림동의 한국인 집 주인들은 한국인보다 조선족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중국인들은 월세를 낱짜에 맞게 꼭 맞춰서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신들의 신분 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월세를 꼬박 꼬박 맞춰서 내는 특성 때문에 한국 집 주인들은 조선족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대림동의 주택은 지하부터 1, 2층까지 전부 조선족이 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즉, 노동 공간으로서 안정된 수입을 제공하고 거주 공

간으로서 저렴한 값에 집을 구할 수 있고 소비 공간으로서 모국의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림동은 조선족에게 안식처의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 지역사회의 변화와 관심

(1) 지역사회의 변화

조선족을 향한 한국 사회의 시선은 낮은 민족에 대해 차갑고 무관심함을 보였으나, 유입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점차 조선족을 우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나가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맞추어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조선족들을 위한 제도적 마련과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대림동 조선족의 모국인 커뮤니티는 크게 다문화 빌리지 센터, 경로당, 그리고 조선족 교회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빌리지 센터는 설립 당시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대가 있었으나 국내 최초로 개소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운전면허 교육, 한국문화체험 등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빌리지 센터에서는 어학 수업, 컴퓨터 수업 등을 받으며 조선족들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 문화 참여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면서 주류 사회와의 관계망에서 채우지 못한 문화 체험을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 문화 참여 프로그램은 조선족들의 높은 한국

9) 서울 대림동 조선족 밀집지의 상점 간판은 대부분 중국어이며, 한국 사람이 가게를 정리하면 중국인이 바로 들어온다. 외국인 타운은 불황을 겪지 않으며 영등포구와 같은 차이나타운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국경제, 2011년 4월 10일자 [안산 원곡동 상가 80% 외국인이 운영... 1년 내내 장사 잘 돼요...])

10) 연합뉴스, 2011년 7월 5일자, [대림역 인근 조선족 직업소개소 성업]

문화 수용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조선족들은 대부분 문화적응에서 좀 더 높은 의지를 보이는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조선족 경로당과 조선족 교회는 조선족들의 컴퓨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조선족들에게는 집 주변의 공원과 자주 들르는 다방 외에는 따로 쉬거나 만남을 가질 공간이 없다. 대림동을 조금 벗어나면 높은 가격과 수많은 한국인들 틈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컴퓨터로서 이용하게 된다. 조선족 경로당은 2년 전부터 조선족 노인들을 위한 노인정이 구립 경로당으로 되면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었다. '대림 중앙시장 1길 경로당'은 인근에 있는 노인정에서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아 곁돌던 노인들이 만든 노인정으로 귀환 동포인 독거노인들이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이 조선족 경로당은 국내 외국인 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대상이 조선족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일의 조선족 경로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2009년 대림동 주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고, 대림 2동 주민들의 조선족 노인정 구립화 찬성 동의서를 얻어내어 2년 전부터 지원금이 제공되고 있으며¹¹⁾, 노인정은 현재 80-90명의 귀화한 독거노인들이 지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기존의 조선족 밀집 거주지였던 구로구 가리봉동 지역에 있던 소규모의 지원 센터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대림동뿐만 아니라 영등포구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영등포구 주변으로 신길동과 당산동에서도 종합 사회복지관, 수녀원 등에

서 조선족 자녀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을 무료로 진행하고 보험을 들기 어려운 외국인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더불어 조선족을 위한 중국 은행도 자리 잡고 있으며, 조선족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자녀 담당 선생님이 있고, 수업이 뒤쳐지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구청에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구청 자체에서부터 외국인들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다른 구청들에 비해 다문화에 대한 언급도 많은 편이고,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하죠. 여기만 해도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거죠. 통역 서비스라든지 행사 지원도 하고 있어요...”

- 이OO, 남, 다문화 빌리지 센터 교육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지역 사회의 변화는 최근 2-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대림동의 조선족 밀집 거주지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확장되어가기 시작한 2004, 2005년 이후로 3-4년의 시간이 흐른 후이다. 이와 같은 영등포구의 사례는 앞으로 더욱 증가하고 범위적으로도 넓어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방향과 태도를 시사한다. 하지만 제도적인 변화와 시설의 구축보다 필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이다. 아직까지 지역주민의 인식의 변화와 이를 통한 두 주체간의

11) 중한정보사이트 <http://www.cnkr114.com>

소통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관심과 변화를 시작으로 하여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의 보다 깊은 이해와 받아들임이 요구되어진다.

(2) 소통의 필요성

거주자들은 일상에 의존하는 세계와의 끊임없는 관계 맺기를 통해서 공간을 생산하게 된다. 관계 맺음의 표현은 경관을 통해 드러나고 공간에 있는 공동체와 공간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주체가 한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될 경우, 이 두 주체 간의 소통과 관계는 지역성의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대림동이 조선족의 밀집 거주지로서 자리를 잡기 이전에 그 역할을 하였던 가리봉동의 경우, 이주민 공동체와 그들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 공동체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 주체의 일방적인 계획 속에 가리봉동의 장소성은 무장소화 되었다. 무장소화(placelessness)는 에드워드 렐프에 의하면 장소가 상업적 개발 과정에서 개성을 박탈당해 동질적이고 규격화되 경관으로 변화되어 고유한 장소감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리봉동은 조선족 밀집 거주지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장소성을 전달하는 매체 중 하나인 중앙 권력(central authority)에 의해 그 의미와 역사적 산물을 잃은 지역 중 하나이다. 지속적인 재개발을 겪고 있는 도시들의 경우 중앙 권력

에 의한 무장소화와 장소의 의미 상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¹²⁾. 지역 정부의 계획에 의한 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상실해가고 있는 가리봉동의 의미와 역할은 대림동으로 이전되어 옮겨져 왔다. 대림동이 가리봉동의 무장소화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고 의미와 역할을 유지해나가 새로운 장소성과 장소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서부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지역사회, 그리고 한국사회와의 소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영등포구 대림동에서는 확장되어 가는 조선족의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점차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지역제도의 설립과 지원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인식과 양측 간의 원활한 소통이다. 현재 대림동에는 경로당이 두 개가 존재하며, 각각 한국인 노인들과 조선족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쓰인다. 조선족 경로당도 구립 경로당이 되어 제도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족과 주류사회인 지역 주민들의 분리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족의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바람은 외국인 초등학교가 설립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조선족들은 주류사회와 단절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을 위한 초등학교가 설립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외국인 학교가 늘고 있는 상황과는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

12) 무장소성은 매스 커뮤니케이션, 표준화된 가치로 이루어진 대중 문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중앙권력, 그리고 경제 체제 등에 의해서 전달되며 무장소성의 표출 형태는 디즈니화, 박물관화와 같은 장소의 타자 지향성, 장소의 획일성과 표준화, 몰양식의 장소, 장소 파괴, 그리고 지속적인 재개발을 겪고 있는 장소의 일시성과 불안정성 등으로 나타난다.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London-Pion,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옮김, 2003,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pp. 235-244)

다.

“...한국말을 잘해도 한국에서 지내는게 어려운 데, 조선족 초등학교까지 생기면 한국 사람들이랑 접할 기회가 없어져요.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니까 갈등도 덜 할테고, 그나마 쉽게 친해지잖아요. 애들은 한국 애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한국에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회마저 없다면 아이들 적응은 더 어려울거 같아요.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해질 기회가 많아져야죠...”

- 이OO, 여, 39세, 글로벌 빌리지 센터 이용객

대림동은 서울에서 가장 큰 외국인 밀집 거주지 인만큼 이주민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받아들이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더 나아가 두 주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앞으로 요구되어지는 부분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원활한 소통의 유무에 따라 대림동이라는 지역의 의미와 역할이 변화하게 될 것이며,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서울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림동 조선족 밀집 거주지를 사례로 하여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였다.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의 역할이라는 해석을 통해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해 보았으며, 동시에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 타 외국인들과 상이한 문화적응을 겪고 있는 조선족들에게 대림동이라는 공간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는지를 살

펴보고, 이 과정 속에 일어난 지역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서울 대림동은 조선족들에게 연변과 서울을 이어주는 통로로서 장소감을 형성하였다. 대림동은 조선족들을 받아주는 지역이자 정보 제공과 직장을 얻기 용이한 장소로서 연변과 한국을 이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은 다른 지역으로 직업을 얻어 나가기에 앞서 대림동으로 들어온 후 취업을 한 지역으로 2차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하다보니 방문취업제와 같은 제도적인 변화로 함께 상승작용이 일어나 대림동으로 유입되는 조선족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조선족 거리의 경관에서조차 조선족 음식 상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간판어의 비율에서도 중국어로 이루어진 간판과 중국어와 한국어의 혼합어 형태를 합쳐 판단할 경우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조선족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저렴한 집값과 교통이 편리한 대림동에 정착하게 되면서 연변의 문화를 재현해 놓았으며, 수많은 조선족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대림동은 연변에서 서울로의 인구·문화의 통로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둘째, 특수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조선족들은 문화적응을 살펴본 결과 한국 사회에 동화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수용된 한국 문화는 대림동에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는 조선족들에 의해 역이동 된다. 이주 이전 중국에서부터 한국어를 사용한 빈도가 높은 조선족들은 다른 외국인들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높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 실력이 낮은 조선족들의 경우,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

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것은 한국 사회로의 동화 의지를 증명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 수용에 대한 의지 또한 높게 보여 지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쉽사리 겪게 되는 사소한 문화적 요소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문화 요소 중 하나인 음식에 대한 수용을 살펴본 결과 조선족들은 자신들이 이주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국 사회에서 소수 집단이라는 것을 인지한 채 한국 문화 수용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셋째, 대림동이 조선족의 통로로서 장소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던 조선족들에게 대림동은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일정 수준의 경제적인 지위를 얻고 그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옴으로서 조선족들에게 대림동은 안식처로서의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형성되었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선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즉,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류사회의 받아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외국인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앞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 아닌 서울 대림동에 거주하는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조선족의 경향이 아니라는 점과, 인터뷰의 표본이 작다는 점에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부분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동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외국인 밀집 거주지의 증대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외국인 밀집 거주지에 대해 통로로서의 역할이라는 새로

운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그 과정 속에 특수한 민족인 조선족의 문화적응을 살펴보면서 한국 사회에 요구되어지는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광역, 2005, 음식과 현대한국사회: 음식의 생산과 문화의 소비, 한국문화인류학, 26, 7-50.
- 김동환, 2007, 이문화적응 이론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30(3), 97-112.
- 김은미, 김지현, 2008, 다인종·다민족 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 서울의 외국인 마을 사례, 한국사회학, 42(2), 1-243.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 식- 서울시 구로·영등포구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7, 231-264.
- 김효진,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모국음식 문화 공유와 전파,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준, 서탁, 2008,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할 - 화교들의 문화변용을 중심으로, 한국 언론학보, 52(6), 5-443.
- 박배균, 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세훈, 2009,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국토·도시정책 과제, 국토: Planning and policy, 342, 20-30.
- 박세훈, 정소양, 2010,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따른 외국인의 공간분포 특성과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254, 1-8.
-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양필승,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한국 화교 경제의 어제와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 이민주, 2007, 재중동포의 상업 활동과 정체성 형성 - 가리봉동 현장 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문수, 2008, 재현의 공간과 문화의 혼성 - 서울 가리봉동 연변마을의 경관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준호, 2006, 경로의존성과 지역발전경로: 안산을 사례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9(3), 410-430.

- 조현미, 2006,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에스닉 커뮤니티의 형성 - 대구시 달서구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5), 540-556.
- 최재현, 강민조, 2003, 외국인 거주지 분석을 통한 서울시 국제적 부문의 형성,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1), 17-30.

2. 국외문헌

- Berry, J. W., 1980, Accultur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Accultur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 Boudler, CO: Westview, 9-25.
- Boal, F. W., 1976,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D.T. Herbert and R.J. Johnston (eds.), *Social Area in Cities*, 1, 41-79.
- Brown, L. A. and Chung, S., 2008, Market-led Pluralism: Rethinking Our Understanding of Racial/Ethnic Spatial Patterning in U.S. Citie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98(1), 180-212.
- Clark, W. A. V., 1986, Residential segregation in American cities: A review and interpreta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5, 95-127.
- Cui, G., Berg, S.V.D. and Jiang, Y. 1998, Cross-cultural adaptation and ethnic communication: two structural equation models, *Howard Journal of Communications*, 9(1), 69-85.
- Galster, G., 1988, Residential segregation in American cities: A contrary review,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7, 93-112.
- Goody, J., 1982, *Cooking, cuisine and class: a study in comparative soci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aslberger, A., 2005, Facets and Dimensions of Cross-Cultural Adaptation: Refining the Tools, *Personal Review*, 34(1), 85-109.

- Kim, D. H., Kim, H. J., and Sim, S. H. (translation),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Nonhyung, Seoul (김덕현, 김현주, 심승희, 2005,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서울; Relph, E., 1976, *Place And Placelessness*, Pion, London).
- Park, S. I. (translation), 2008,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E-who, Seoul (박성일, 2008,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정체성, 이후, 서울; Edensor, T., 2002, *National Identity, Popular Culture and Everyday Life*, Berg Publishers, Oxford).
- Redfield, R., Linton, R. and Herskovits, M.J., 1936, Memorandum for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ex, J. and Mason, D., 1986,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White, M.J., 1988, Urban commuting journeys are not wasteful, *Journal of Political Economies*, 96(5), 1097-1110.

3. 홈페이지

국민일보 <http://www.kukinews.com>
법무부 <http://www.moj.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영등포구청 <http://www.ydp.go.kr>
중한정보사이트 <http://www.cnkr114.com>
통계청 <http://www.kostat.go.kr>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